수미산 원정대

상월결사 정신 계승…불연맺기 활성화



수미산원정대는 12월 9일 봉은사 향적원에서 1기 동문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증명인 회주 자승 스님(사진 앞열 왼쪽 두 번째)을 중심으로 지도법사를 맡은 단장 원명 스님(사진 앞열 왼쪽 첫 번째),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사진 앞열 왼쪽 세 번째)과 동문회원들의 모습.

수미산원정대 1기, 봉은사서 동문회 출범

12월 9일 봉은사 향적원에서 출범식 및 임원 위촉 이어가

1기 40여명 참여…동문회장 육현표
분기별 1회 성지순례 및 초청강의
단장 원명 스님 "상월정신 생활로"



자승 스님은 동문회에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육현표 회장이 차걸이 선물을 소개하고 있다.



출범식에는 40여 불자들이 참석했다.

봉은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상월결사 정신을 계승하는 수미산원정대의 첫 동문회가 창설됐다. 수미산원정대(회주 자승, 단장 원명)는 12월 9일 봉은사 향적원에서 졸업생들의 중심체가 될 1기 동문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해 단장 원명 스님,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육현표 1기 동문회장 등 수미산원정대 1기 40여 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을 시작으로 회장단 임명장 수여, 임원진 임명장 수여, 동문회 발전기금 전달식, 수미산원정대 단장 원명 스님 축사, 육현표 동문회장 인사말, 운영진 및 회칙 소개, 민세진 교류국장의 주요사업 소개, 개인별 법명 및 졸업앨범 선물 등으로 진행됐다.

수미산원정대 1기 동문회는 회주 자승 스님을 증명으로 단장 원명 스님이 지도법사로 이끈다.

회주 자승 스님은 육현표 1기 동문회장을 비롯해 김기유, 김동건, 박범훈, 주윤식 고문과 박현숙, 안창섭, 이선재, 이태경, 최은주 부회장, 곽상언, 박기련 감사, 황순일 사무총장, 김용현 포교국장, 민세진 교류국장 등을 위촉했다.

단장 원명 스님은 "상월선원 만행결사를 계승하는 가치관을 갖고 봉은사에서 함께 신행생활을 해야 한다. 다른 동문회와 다르게 신행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신행생활을 통해 수미산원정대 정신을 이어가길 바란다. 불교의 가치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천하는 불교, 불자로서 함께 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육현표 동문회장은 출범식에서 "1기라는 무거운 책무를 지니고 있다. 걸음걸음에 2기와 3기가 따르게 될 것"이라며 "사업계획을 실천으로 이어갈 때 의미를 지닌다. 동문들이 함께 자주 모여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단장 원명 스님은 원정대원들에게 법명이 새겨진 차걸이와 1기 활동을 기록한 앨범을 선물로 각각 전달했다. 이어 동문회칙 등이 발표됐다.

1기 대원인 차승재 동국대 교수는 "부부가 함께하는 신행생활을 통해 동문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학교법인 은구학원 김기원 이사는 "동문들과 같이 공부를 시작한 지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이 시국에 어려운 공부였지만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다"며 "수미산원정대 발전을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미산원정대 1기 동문회는 동문회 사업으로 △연말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 △봉은사 신도로 주요행사 참여 △분기별 1회 불교인사 초청강의 등 모임 △분기별 1회 사찰 순례 △운동 · 등산 등 동문회 교류활동 △입학식 · 졸업식 참여 등 수미산원정대 후원 △상월선원 후원 및 행사 참여 등을 공개했다.



수미산원정대는 12월 5일 교육 과정 일환으로 보은 법주사에서 1박 2일간 템플스테이 형식의 성지순례를 진행했다. 이날 순례에는 60여 불자들이 참여해 불심을 키우고, 불교중흥을 발원했다.

수미산원정대 2기, 법주사서 성지순례

12월 5일, 2기 교육 일환으로
1박 2일간 템플스테이 진행

자승 스님 "자신감이 신앙 근원"
새벽예불, 108배하며 불심 키워
초심불자, 이웃종교인 호평 눈길



5일 108배를 진행하는 2기 대원들.



조별 모임을 통해 불자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새벽예불에서 반야심경을 봉독하는 모습.

법주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상월결사 정신을 불교 인연맺기로 확장하고 있는 수미산원정대가 2기 성지순례를 봉행했다. 수미산원정대(단장 원명, 봉은사 주지)는 12월 4일과 5일 보은 법주사에서 성지순례를 진행했다.

이날 성지순례에는 2기 51명을 비롯해 1기 3명과 관계자 등 총 64명이 참여했다. 수미산원정대는 대부분이 불교초심자이거나 무종교 · 이웃종교인들로, 이들은 성지순례에서 사찰 예절과 절하는 법을 배웠고 새벽예불, 108배, 참선, 사찰탐방을 통해 불심을 키웠다.

수미산원정대 2기 성지순례 둘째날인 5일에는 회주 자승 스님이 직접 현장을 찾아 대원들을 격려하는 법문을 했다. 이날 법문은 성지순례 기간 배포된 공양기도문에 대한 얘기부터 진행됐다. 상월결사에서는 지난 순례 때부터 대중화된 공양기도문을 만들어 보급을 시작했다.

자승 스님은 "사찰에서 공양할 때만 기도문을 외지 마시고, 아이들 · 가족이 함께 바깥에 식당에서 공양하실 때에도 기도문을 외시라"며 "믿음의 근간은 내 종교에 대한 자신감으로 내가 믿는 종교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여러 사람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공양발원하기가 쉽지 않다. 이웃종교인들은 자신있게 자신이 믿는 종교를 드러내지만, 불교는 과하게 드러내지 않더라도, 자신감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이 자리에 함께한 수미산원정대 2기 여러분들도 한국 불자로서 대표한다는 자신감을 가져달라"며 "자신이 택한 수미산원정대인만큼 부처님의 지혜가 삶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1박 2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봉은사에서의 교육과 달리 템플스테이를 거치며 수미산원정대 2기는 불교에 대한 신심과 도반의 정을 쌓을 수 있었다.

양형진 은석초 교장은 "이번 성지순례는 불자로서 더욱 정진하여 노력하라는 의미같다"며 "수미산원정대에서 은석초에서 학부모위원회 활동 등을 열심히 하신 분을 만나는 등 예전의 인연과 새 인연을 만나 더욱 신심이 난다"고 말했다.

수미산원정대 2기에는 초심불자와 이웃종교인들의 비중이 높은 만큼 불교를 접한 소감도 남달랐다.

가톨릭 신자인 정태진 평택대 교수는 "법주사에 온 첫날 '스님의 아멘' 이라는 다큐를 보았는데, 여기서 나온 자승 스님이 생각하는 이웃 종교와의 관계, 상호존중이라는 측면이 크게 마음이 와닿았다"며 "현재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까지 많이 보여주신 것 같다. 불교를 알게 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에 3기에는 학교 제자들도 입학을 권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성지순례는 법주사 부주지 각운 스님의 사찰 안내와 함께 세조길 포행, 주지 정도 스님의 회향인사로 마무리 됐다.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